

## 날씨의 기록, 제43회 기상기후 공모전 수상작 발표

- 렌즈형 구름 담은 석기철 씨의 <구름이 빛은 소용돌이> 영예의 대상 선정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최종 수상작 39점을, 3월 13일(금)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kma)과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누리집(www.weather-photo.kr)을 통해 발표했다.

‘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는 총 3,39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 대국민 공개 검증, 기상현상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작 39점이 선정됐다.

먼저 본 시상인 사진 부문에는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입선(22점) 등 총 29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에는 설악산에서 촬영한 <구름이 빛은 소용돌이(석기철)>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2025년 7월 설악산 마등령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강원도의 산악 지형과 강한 기류가 만들어 낸 렌즈 형태의 구름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진 부문 후보작을 대상으로 열흘간 진행된 대국민 인기 투표에서도 전체 5,788표 중 431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게 되었다.

금상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날 추위를 이겨내는 제주 말의 강인한 모습을 담은 <설중마(강병진)>가, 은상은 제주 오름 위 울퉁불퉁한 형태의 구름을 담은 <거친 구름 물결(양연심)>과, 태안군 바다의 하늘을 수직으로 가르는 빛과 구름의 경계선을 포착한 <두 개의 세계(이동섭)>가, 동상은 3월에 강원도에 내린 폭설과 강풍을 뚫고 출근하는 광부의 모습을 담은 <봄에 내리는 폭설(이상운)>을 비롯한 3점이 선정됐다.

한편 특별상으로 시상되는 영상 부문은 남극에서 촬영된 <남극의 렌즈 구름. 강력한 블리자드의 전조 현상(김상현)>, 별이 쏟아지는 시골 밤하늘을 촬영한 <시골 밤하늘(최원희)>, 한강 위 얇은 얼음이 과도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한 <얼음 아래 파동(전지윤)> 등 3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특별상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 부문에는 2025년 지역별로 발생한 위험 기상현상을 유리관 속에 표현한 <2025년 유리 속의 날씨 전시회(이강욱)>, 기후변화로 달라질 미래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그린 <8월 아닌, 12월의 크리스마스(이동규)> 등 창의력과 작품성이 돋보인 영상과 이미지 콘텐츠 총 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들은 오는 3월 23일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해 대전 엑스포시민광장(3.21.~3.23.)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부산 시청역, 광주지방기상청 등 전국 곳곳에서 무료 관람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관람이 가능한 비대면(온라인) 전시도 진행된다. 지역별 자세한 전시 일정은 기상청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 추후 자세한 전시 일정은 기상청 누리집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참조

이미션 기상청장은 “매년 개최되는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겪은 다양한 기상현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장”이라며, “이번 수상작들을 통해 자연이 만들어 낸 경이로운 순간을 감상하며 날씨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 붙임 1.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수상 현황
- 2.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주요 수상작 소개




담당 부서	디지털소통팀	책임자	팀장	김승민 (02-2181-0355)
		담당자	주무관	장정아 (02-2181-0360)





구분	수량	상훈	상금	성명	작품명	
사진 부문	대상	1점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상	500만 원	석기철	구름이 빛은 소용돌이
	금상	1점	기상청장상	200만 원	강병진	설중마
	은상	2점		각 100만 원	양연심	거친 구름 물결
					이동섭	두 개의 세계
	동상	3점		각 50만 원	이상운	봄에 내리는 폭설
					강동근	조업
					손석	강풍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입선	22점	-	각 15만 원	장완수(서리가 내린 날) 외 21명		
인기상	(1점)	-	40만 원 상당의 경품	석기철	구름이 빛은 소용돌이	
영상 부문	특별상	3점	기상청장상	각 20만 원	김상현	남극의 렌즈구름. 강력한 블리자드의 전조 현상
					최원희	시골 밤하늘
					전지윤	얼음 아래 파동
생성형 인공지능 (AI) 콘텐츠 부문	특별상	7점	기상청장상	각 15만 원	이강욱	(영상) 2025년 유리 속의 날씨 전시회
					조문희	(영상) 기상 관측 기록: 오늘의 날씨, 미래의 기준
					전시안	(영상) 만약, 서울의 하늘에서
					이동규	(이미지) 8월 아닌, 12월의 크리스마스
					류한석	(이미지) 골든타임의 끝
					김태정	(이미지) 마지막 자연설
					조현빈	(이미지) 태풍의 눈을 내려다보다
계	총 39점					

※ 입선은 총 29점으로 공개검증을 통해 타 공모전 수상작과 유사한 1점을 제외함




※ 인기상은 사진 부문 수상 후보자 30점 중 국민투표(100%)를 통해 선정함

1. 사진 부문




작품(상격) / 작품명 / 작가명	작품설명	촬영일 및 장소
 <p>(대상) 구름이 빛은 소용돌이 / 석기철 작</p>	<p>(사진) 2025년 7월 새벽 여명이 밝아 오는 무렵 설악산에서 포착한 장면으로, 산지에 강하게 부는 바람(최대순간풍속 24.1m/s)에 의해 형성된 렌즈 형태의 구름이 하늘에 펼쳐진 순간을 담았습니다.</p>	<p>2025. 07. 0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p>
 <p>(금상) 설중마 / 강병진 작</p>	<p>(사진) 2023년 1월 말 제주에 폭설이 내린 제주 들판에 추위를 이겨내며 서 있는 제주마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이 나아가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p>	<p>2023. 01. 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p>
 <p>(은상) 거친 구름 물결 / 양연심 작</p>	<p>(사진) 제주시 오등동 보리밭과 한라산을 배경으로 하늘에 펼쳐진 신기한 구름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주변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울퉁불퉁한 형태의 물결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p>	<p>2025. 05. 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p>





작품(상격) / 작품명 / 작가명	작품설명	촬영일 및 장소
 <p>(은상) 두 개의 세계 / 이동섭 작</p>	<p>(사진) 태안군 파도리 바다에서 하늘을 수직으로 가르듯 내려오는 빛과 구름의 경계선을 포착해 한 프레임 안에 담았습니다. 빛이 공기 중의 미세한 입자와 부딪혀 사방으로 퍼지면서 빛의 통로가 생기는 빛내림 현상입니다.</p>	<p>2025. 10. 25. 충청남도 태안군</p>
 <p>(동상) 봄에 내리는 폭설 / 이상운 작</p>	<p>(사진) 강원도 태백의 3월 봄에 내린 폭설 속에서도 출근길에 나선 광부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거센 눈보라와 강풍을 이겨내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을 통해 날씨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표현했습니다.</p>	<p>2025. 03. 2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p>
 <p>(동상) 조업 / 강동근 작</p>	<p>(사진) 서해의 어촌마을 갯벌에서 어업 채취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주민들의 아침 풍경을 담았습니다. 안개로 수백 미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일상을 몽환적인 분위기의 흑백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p>	<p>2024. 06. 06. 충청남도 태안군</p>
 <p>(동상) 강풍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 손석 작</p>	<p>(사진) 강풍경보와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날, 전남 무안 바닷가에서 거센 바람과 함께 몰아치는 눈보라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강풍에 휘날리는 눈발이 빛을 받으며 사방으로 퍼져나가 마치 별이 쏟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p>	<p>2026. 01. 10. 전라남도 무안군</p>

## 2. 영상 부문

작품(상격) / 작품명 / 작가명	작품설명	촬영일 및 장소
 <p>(특별상) 남극의 렌즈구름. 강력한 블리자드의 전조 현상 / 김상현 작</p>	<p>(영상) 2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서쪽 고원에서 형성된 렌즈구름을 담은 영상입니다. 강한 바람이 남극횡단산맥을 넘으며 공기 파동이 생겨 렌즈구름이 형성되며, 이는 기지에 강풍이나 블리자드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p>	<p>2024. 02. 27. 동남극 테라노바만</p>
 <p>(특별상) 시골 밤하늘 / 최원희 작</p>	<p>(영상) 어릴 적 시골의 밤하늘은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빛공해로 인해 이런 풍경을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p>	<p>2025. 02. 15. ~ 02. 16. 충청북도 보은군</p>
 <p>(특별상) 얼음 아래 파동 / 전지윤 작</p>	<p>(영상) 1월 한강에서 선박이 지나가며 생긴 물결이 얼음 아래로 전달돼 얇은 얼음이 파도처럼 흔들리고 갈라지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정지된 얼음 아래에서 이어지는 물의 움직임이 잠시 드러난 자연의 장면입니다.</p>	<p>2026. 01. 03. 서울특별시 강서구</p>

### 3. 생성형 인공지능(AI) 부문

작품(상격) / 작품명 / 작가명	작품설명	제작도구
 <p>(특별상) 2025년 유리 속의 날씨 전시회 / 이강욱 작</p>	<p>(영상) ‘유리 속의 계절’은 2025년 관측된 주요 기상 이변을 AI 기술로 시각화한 영상입니다. 강원 폭설, 대구 우박, 서울 열대야, 군산 폭우, 제주 용오름 등 다섯 가지 극한 기후 사례를 비바리움 디오라마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자연 현상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며 기후변화의 현실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p>	<p>Gemini, Kling, Nano Banana Pro, Suno</p>
 <p>(특별상) 기상 관측 기록: 오늘의 날씨, 미래의 기준 / 조문희 작</p>	<p>(영상) 일상에서 관측된 기상·기후 현상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입니다. 강수 형태, 폭염, 집중호우, 대설 등 다양한 현상을 실제 관측 자료를 분석해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기록이 미래 기후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p>	<p>ChatGPT, Midjourney, capcut, suno, elevenlabs</p>
 <p>(특별상) 만약, 서울의 하늘에서 / 전시안 작</p>	<p>(영상) 서울 한강 하늘에 오로라가 나타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익숙한 도시 풍경 위에 더해진 빛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지구 기후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암시하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현실과 상상이 겹치는 장면을 통해 감탄과 불안이 공존하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p>	<p>ChatGPT, Midjourney, Kling</p>

작품(상격) / 작품명 / 작가명	작품설명	제작도구
 <p>(특별상) 8월 아닌, 12월의 크리스마스 / 이동규 작</p>	<p>(이미지)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고, 광장에 놓인 트리가 더위에 휘어진 모습을 통해 기후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모습은 익숙해진 이상기후와 기후위기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p>	<p>ChatGPT, Gemini, Nano Banana Pro 등</p>
 <p>(특별상) 골든타임의 끝 / 류한석 작</p>	<p>(이미지) ‘CLIMATE EMERGENCY’가 새겨진 거대한 모래시계를 통해 기후 위기의 절박함을 시각화한 작품입니다. 녹아내리는 빙하와 위태로운 북극곰, 그리고 불타는 도시와 홍수의 장면을 대비시켜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p>	<p>Gemini, Nano Banana Pro</p>
 <p>(특별상) 마지막 자연설 / 김태정 작</p>	<p>(이미지) 지금은 당연한 계절의 풍경이 미래에는 기술로 보존해야만 볼 수 있는 ‘유물’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상상한 작품입니다. 인공적인 진열장 속 자연의 아름다움과 차가운 박물관 공간의 대비를 통해, 기후 위기로 우리가 잃어버릴지도 모를 일상의 풍경을 되돌아보게 합니다.</p>	<p>Gemini</p>
 <p>(특별상) 태풍의 눈을 내려다보다 / 조현빈 작</p>	<p>(이미지) 기상위성으로 관측하는 태풍의 눈을 AI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거대한 회전 구름 속 중심에 존재하는 고요한 공간을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극단적인 에너지 속에 나타나는 잠시의 정적을 담았습니다. 폭풍 속 평온은 위기의 시대에도 존재하는 자연의 균형과 회복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p>	<p>ChatGPT, Gemini, Nano-Banana 등</p>